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 북경서 개막

습근평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주석대에 좌정

리강 정부사업보고 진술 조락제 대회 사회

대표법 수정 초안에 관한 설명 등을 청취



▲ 3월 5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 / 신화사



▲ 3월 5일 오전,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이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 신화사



▲ 5일 오전,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조락제가 개막회를 사회했다. / 신화사

[북경 3월 5일발 신화통신]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가 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근 3,000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이 인민의 중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대회에 참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리행했다.

인민대회당 대강당의 분위기는 장중하면서도 열렬했다. 주석대 장막 한복판의 국장은 산뜻한 붉은기와 어우러져 유난히 빛났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조락제가 대회를 사회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들

인 리홍중,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웅, 팽정화, 장경위, 류장성준, 쉼커라이티·자커얼, 류기가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좌정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과 대회 주석단 성원들

이 주석대에 좌정했다.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 참가해야 할 대표는 2,929명이다. 5일 오전 회의에 참가한 대표는 2,880명이고 결석한 대표는 49명으로서 참가 인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되었다. 오전 9시, 조락제가 중화인민공화

국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의 개막을 선포했다. 장내 전원이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불렀다. 회의 의정에 따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보고는 2024년 사업보고, 2025년 경제사회발전 총체

적 요구와 정책 방향, 2025년 정부사업 임무 등 도합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리강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나라의 발전 로정은 아주 평범하지 않았다. ▶ 2면으로

전국정협 14기 3차 회의 북경서 개막

습근평 리강 조락제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회의에 참석하여 축하 왕호녕 정협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진술

석태봉 사회 장작군 제안사업 상황 보고 진술

[북경 3월 4일발 신화통신] 마음과 힘을 모아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을 함께 펼치고 분발노력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엮어야 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4기 전국위원회 제 3차 회의가 4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2,000여명의 전국정협 위원들이 중공중앙의 결책 포치, 당과 국가의 중심임을 둘러싸고 직책을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건언자정하며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지혜와 힘을 결집하게 된다.

3월의 북경은 봄기운이 감돈다. 인민대회당 대강당은 등불로 환하고 분위기가 장중하고 열렬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휘장이 주석대 장막 한가운데 걸려있고 10쪽의 붉은기가 휘장량면에 나란히 세워져있었다.

전국정협 14기 3차 회의에 참석해야 할 위원은 2,154명이고 실제 2,110명이 참석해 규정 인수에 부합되었다. 전국정협 주석 왕호녕과 전국정협 부주석들인 석태봉, 호춘화, 심약약, 왕용, 주강, 파바라·계레남제, 하후화, 량진영, 바터얼, 소취, 소홍, 고운룡, 진무, 목홍, 함취, 왕동봉,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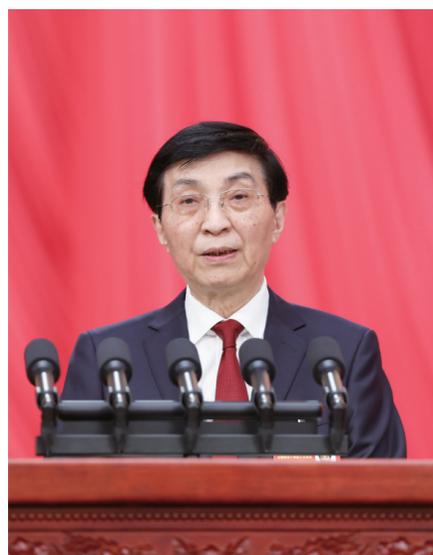
▲ 4일 오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4기 전국위원회 제 3차 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습근평, 리강, 조락제,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이 주석대에 자리를 했다. / 신화사

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주영신, 양진이 주석대 앞줄에 자리를 했다.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근평, 리강, 조락제,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주석대에 자리를 하고 대회의

소집을 축하했다. 오후 3시, 석태봉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전원이 기립해 중화인민공화

국 국가를 높이 불렀다. 대회는 우선 정협 제 14기 전국위원회 제 3차 회의 의정을 심의, 채택했다.



▲ 전국정협 주석 왕호녕이 정협 제 14기 전국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사업을 보고했다. / 신화사

왕호녕이 정협 제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사업을 보고했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이 되는 해이고 '14.5'계획의 목표 임무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해였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년간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고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여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거두려는 결심과 신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왕호녕은 지난 1년 동안의 인민정협 사업을 총화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은 인민정협 설립 75돐이 되는 해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설립 75돐 경축대회에서 중요 연설을 발표하여 새시대, 새 로정에서의 인민정협 사업의 발전에 전진의 방향을 가리켜주었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 ▶ 2면으로